

새 책

▶**동경대전1·2(도올 김용옥 지음)**  
= '동경대전' 초판본의 완역이자 상세한 주석서다. '동경대전'은 수운 최제우가 추구하는 동학의 사상체계, 예술적 감성까지 총체적으로 담겨있는 문헌이다. 저자는 최제우가 저술한 '동경대전'과 그에 대한 전기인 '대선생주몽집'을 심혈을 기울여 번역 해설해 최제우가 누구이고 동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서술했다. 통나무, 각 2만9000원.



▶**장벽의 시간(안성호 지음)**=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해온 저자는 국제 분쟁 전문가로서 많은 분쟁지역을 방문하면서 거대한 장벽들을 만났다. 책은 20세기에 만들어진 다섯개의 장벽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거대한 장벽들의 벽돌 하나, 철조망 한 가닥마다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역사, 주민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크레타, 1만7000원.



▶**평화는 처음이라(이용석 지음)**=평화활동가인 저자는 책에 대해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공부이자 여정"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평화활동가들이 주로 받는 질문을 다루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과 구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했다. 또 전쟁과 맞서고 평화를 일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룬다. 빨간소금, 1만2000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마운 사람이고 싶습니다(원태연 지음)**=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감성 시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가의 신작 예세이다. 어린 시절에 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음 깊은 곳에 겹겹이 쌓아두었던 고민과 슬픔,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았다. 밀리오리지널, 1만4000원.



▶**하트 바오밥나무(이종석 글·그림)**=저자는 다운후후군이라는 지적 장애를 뛰어넘어 2016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그림을 그리면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나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들숨날숨, 1만5000원.



▶**내 안에 나무(코리나 루켄 지음, 김세실 옮김)**=작가는 '나무'의 이미지를 빌려 '나'라는 존재 속에서 움트고 성장하는 생명과 사랑의 신비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전개한다. 봄날의 절정을 맞은 듯한 하나의 세계를 주조색인 핑크빛과 더불어 화사하고 신비로운 색감으로 구현한 그림책이다. 나는 별, 1만6000원.



# 미국은 어쩌다 조세 정의의 희망 꺾였나

## 사에즈 등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세율 인하에 조세 회피 증가 누진적 소득세 복원 등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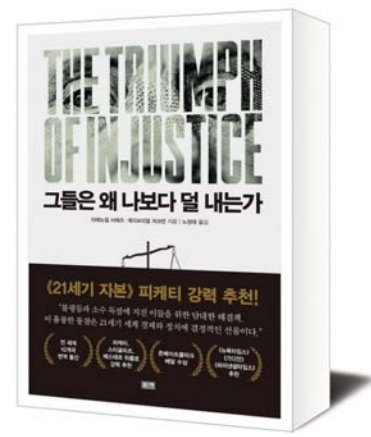
그들은 19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세기에 걸친 통계 자료를 수합해 미국의 최고빈곤층부터 막대한 재산가들까지 각각의 사회집단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추산했다. 그랬더니 1970년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트럼프가 세계계약을 하면서 지난 100년 이래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이 철강 노동자, 교사, 퇴직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 세율로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줬던 미국이 어쩌다 엄청난 슈퍼리치들이 내야 할 세금을 깎고 또 깎아주는 나라가 되었을까.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를 통해 조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조세 체계를 모색했다. 정의롭지 못한 조세 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계화와 누진세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세율을 낮춰 조세에 순응하도록 유도해도 세액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레이건 정부 시절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췄을 때 조세 회피가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야말로 부의 집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도구라고 봤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만한 소득은 그리 많이 벌지 않는 이들을 겨냥한 부유세도 주장했다. "세계화라는 것이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들에게 점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계급의 가족들에겐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면, 세계화에는 미래가 없다"는 두 사람은 세율 인하 경쟁을 중단하는 국제 협력 방안을 내놨다.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던 실질적으로 25퍼센트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조세 도피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유무역에 거스르는 범죄라고 주장하는가. 저자들은 이들에 대해 "세계화의 수호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정태 옮김, 부키, 1만9800원.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 아이들과 놀아준단 약속 번번이 어졌다면

## 서귀포 내과 전문의 김석의 '아빠의 교육법'

두 아들은 온갖 모임과 회식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아빠'를 보고 물었다. "언제 놀아줄 거야?" 그때마다 "놀아줄게"라고 답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 아이들이 커가며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안 주는 시간이 잇따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녀 양육서를 찾아 읽으며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늘려 갔다.

서귀포 삼성타내과 원장인 내과 전문의 김석씨가 '아빠의 교육법'에 그 같은 경험을 녹여냈다.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과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놀았는지 가명을 쓴 수, 현 두 아들을 등장시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결론적으로 그 노는 시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실로 이어졌다. 저자의 교육법에는 게임을 가장

먼저 다뤘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라며 '우리 집 컴퓨터 게임의 법칙'을 만들었다.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하게 해준다 등이다. '아들과 친해지는 13가지 방법'도 소개됐다. 함께하는 하룻길, "아들들"하고 부르며 집에 들어가기 등 실제 겪으며 특중한 사연을 나눈다.

서귀포 생활을 '시골' 살기로 표현하는 저자는 아들이 과학영재고에 합격한 비결로 독서를 꼽았다. 예상을 빚나가지 않지만 그의 집에선 '아빠'부터 책을 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화삼국지 60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책 읽기를 시작했고 "66일이 지나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으로 굳어져 생



활의 일부가 된다"는 '66일의 기적'을 따라 카페 책 읽기 등으로 실천에 나섰다.

'아빠의 교육법'은 "꿈이 있다면 공부해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그가 말하는 공부는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수가 꿈인 사람은 가수가 되기 위해, 야구 선수가 꿈인 사람은 야구나 스포츠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빠의 교육법'을 볼 수 있다. 서교출판사, 1만7000원. 진선회기자

## 이 책 세월호 7주기 김홍모 만화 '홀' 잊지 않고 공동체가 서로를 구할 때



'홀-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생존피해자 가족을 넘어 사회가 재난 피해 복구에 함께 나서야 한다.

그의 오늘을 붙잡고 있는 건 그날의 기억이다.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제주 사려니숲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환영처럼 그날 검고 깊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기울어진 배를 향해 추락하는 악몽은 언제쯤 끝이 날까.

제주4·3 등을 작품에 담은 김홍모 만화가가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내놓은 '홀-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작품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직각으로 기울어져 낭떠러지가 되었던 세월호 선내 중앙의 홀에서 소방 호스를 이용해 학생 20여 명을 끌어 올려 생명을 구했던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다. 인터넷

생존피해자 모델로 작업 뷰, 자료 수집 등 그날의 기억과 참사 이후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재난의 고통 함께 나눠야 간 독립웹툰 플랫폼 품에 무료 연재했다.

단화로 이번에 단행본으로 '홀'엔 김동수씨를 모델로 그린 민용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민용의 시점만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아내, 응급 구조학과를 졸업한 첫째, 7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둘째의 눈으로 피해자 가족의 삶까지 다루고 있다. 가족들은 "세월호 친구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자 "세

월호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빠의 4월 16일"을 살아가며 민용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생존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안아야 하는 순간도 맞는다. 끔찍한 재난이 당사자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그 피해 복구를 위해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월호 도착지였던 제주에는 지금도 김동수씨 같은 생존자가 24명 살고 있다. 다수가 참사로 생계수단을 잃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했다. 출간에 앞서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에 수익금이 기부되는 '홀' 북펀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시민 1000여 명이 힘을 보태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창비, 1만7000원. 진선회기자

### 태양광설비 정부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 단독주택 4월 18일까지 / 상가건물 5월 11일까지

상담 접수 :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